

독자와 함께

‘가정의 달’ 어린이에 꿈과 희망을

어린 시절 당신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나?

아마도 그 꿈을 자랑스레 말할 때면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길라도 하듯 기뻐하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당시만큼 결해서 노력을 한 부모님도 있었을 테지요.

세계적인 선수로 이름을 알리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도 금메달 획득 이후 그 영광을 부모님에게 돌렸 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노력도 대단 하지만, 자녀의 꿈을 위해 옆에서 최선을 다해 서포터 역할을 해준 부모의 공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은 퇴근 이후에 놀이터나 골목에는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 습니다.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대부분 자기의 덩치만큼 큰 가방을 메고 바빠 학원을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모두들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며 열심히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홀로 집에 남아있거나 길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아동은 대부분 우리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물론 이 친구들에게 미래의 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의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의 아동 현황을 조사한 적 있습니다.

그 결과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정, 빈곤가정, 시설아동 1855명의 아동의 꿈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교사 사와 경찰관, 연예인 외에도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동물조련사, 성우, 파 티쉐들 아이들은 각자 어디서 그런 꿈을 꾸었는지 신기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 꿈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들은 부모의 지도는 물론, 방과 후에 사교육에 의존하여 길러야 하는 학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아동이 미래의 꿈을 꾸며 재능 개발을 위해 받고 있는 고액의 사교육과 비교해 볼 때 빈곤아동들에게는 경제적인 빈곤과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해 미래를 꿈꾸는 교육의 기회마저 불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또한 경제적 빈곤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리기 보다는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실업계고등학교와 같은 생계유지형 취업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재능개발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빈곤아동들은 고액의 개발비를 충당할 여건이 주어지지 않거나, 부모의 부재와 같은 인적 지지체계 부족으로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다다음은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과 아픔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넉넉한 가정의 어린이들만 넉넉하지 못한 가정의 어린이들만 마음껏 꿈꾸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절을 보내고, 어린이절 꿈을 꾸었던 우리 어른들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 당신이 꾸는 꿈을 지금의 아이들도 꾸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꿈꾸는 소중한 꿈을 지켜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최삼영·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과 아픔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의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학교 후 길거리 배회 아동 대부분이 저소득가정

차별·아픔없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이머, 엔지니어, 동물조련사, 성우, 파티쉐들 아이들은 각자 어디서 그런 꿈을 꾸었는지 신기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 꿈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들은 부모의 지도는 물론, 방과 후에 사교육에 의존하여 길러야 하는 학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아동이 미래의 꿈을 꾸며 재능 개발을 위해 받고 있는 고액의 사교육과 비교해 볼 때 빈곤아동들에게는 경제적인 빈곤과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해 미래를 꿈꾸는 교육의 기회마저 불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또한 경제적 빈곤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리기 보다는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실업계고등학교와 같은 생계유지형 취업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재능개발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빈곤아동들은 고액의 개발비를 충당할 여건이 주어지지 않거나, 부모의 부재와 같은 인적 지지체계 부족으로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다다음은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과 아픔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넉넉한 가정의 어린이들만 넉넉하지 못한 가정의 어린이들만 마음껏 꿈꾸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절을 보내고, 어린이절 꿈을 꾸었던 우리 어른들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 당신이 꾸는 꿈을 지금의 아이들도 꾸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꿈꾸는 소중한 꿈을 지켜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최삼영·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학교 후 길거리 배회 아동 대부분이 저소득가정

차별·아픔없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이머, 엔지니어, 동물조련사, 성우, 파티쉐들 아이들은 각자 어디서 그런 꿈을 꾸었는지 신기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 꿈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들은 부모의 지도는 물론, 방과 후에 사교육에 의존하여 길러야 하는 학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아동이 미래의 꿈을 꾸며 재능 개발을 위해 받고 있는 고액의 사교육과 비교해 볼 때 빈곤아동들에게는 경제적인 빈곤과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해 미래를 꿈꾸는 교육의 기회마저 불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또한 경제적 빈곤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리기 보다는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실업계고등학교와 같은 생계유지형 취업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재능개발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빈곤아동들은 고액의 개발비를 충당할 여건이 주어지지 않거나, 부모의 부재와 같은 인적 지지체계 부족으로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다다음은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과 아픔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넉넉한 가정의 어린이들만 넉넉하지 못한 가정의 어린이들만 마음껏 꿈꾸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절을 보내고, 어린이절 꿈을 꾸었던 우리 어른들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 당신이 꾸는 꿈을 지금의 아이들도 꾸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꿈꾸는 소중한 꿈을 지켜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최삼영·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학교 후 길거리 배회 아동 대부분이 저소득가정

차별·아픔없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이머, 엔지니어, 동물조련사, 성우, 파티쉐들 아이들은 각자 어디서 그런 꿈을 꾸었는지 신기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 꿈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들은 부모의 지도는 물론, 방과 후에 사교육에 의존하여 길러야 하는 학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아동이 미래의 꿈을 꾸며 재능 개발을 위해 받고 있는 고액의 사교육과 비교해 볼 때 빈곤아동들에게는 경제적인 빈곤과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해 미래를 꿈꾸는 교육의 기회마저 불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또한 경제적 빈곤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리기 보다는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실업계고등학교와 같은 생계유지형 취업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재능개발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빈곤아동들은 고액의 개발비를 충당할 여건이 주어지지 않거나, 부모의 부재와 같은 인적 지지체계 부족으로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다다음은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과 아픔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넉넉한 가정의 어린이들만 넉넉하지 못한 가정의 어린이들만 마음껏 꿈꾸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절을 보내고, 어린이절 꿈을 꾸었던 우리 어른들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 당신이 꾸는 꿈을 지금의 아이들도 꾸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꿈꾸는 소중한 꿈을 지켜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최삼영·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클릭! 맛집



우렁각시가 차려놓은 건강밥상

저수지·뚝방의 자연산만 고집... 단백질 풍부 영양 만점

■광주시 지식동 '초원식당'

개운한 전라도 국물이 그립다면, 광주시 남구 지식동 174-8 초원식당(업주 기미덕)으로 가라. 우렁이를 넣고 끓인 된장국한 술 뜨면 '세상 살 맛' 날 것이다.

이 집은 자연산 우렁이만 쓴다. 친환경농법에 쓰는 우렁이는 대부분 양식이다.

20여년 동안 개운한 국물도 술꾼들의 쓰린 속을 풀어준 이 집은 나주와 함평 등지의 저수지와 뚝방에서 잡은 우렁이만을 고집한다. 자연산 우렁이는 크기는 작지만 살이 알차고, 최고의 국물을 우려낸다. 양식 우렁이는 아무리 많이 넣어도 국물이 개운하지 않다는 게 주인장의 말이다.

맛의 비결은 우렁이를 뜯복 넣어 자연 그대로의 맛을 내는 것. 뜯복에 우렁이를 절반 가량 넣고, 맹물만 붓고 끓인다. 된장과 고춧가루로 맛을 내고, 파를

약간 썰어 넣어 손밥상에 낸다.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도 구수하고, 얼큰하다. 시래기 등 야채와 양념을 많이 넣으면 우렁이의 참 맛을 느낄 수 없다.

우렁이의 양이 많기 때문에 한 참을 까먹어도 똑배기만 우렁이가 줄어들지 않는다.

영양도 최고다. 우렁이 큰 것 하나에는 단백질이 10.5g이나 되지만 지방은 1.4g에 불과하다. 지방함량이 적어 맛이 담백하고 단백질이 풍부해 몸이 허약한 어린이나 노인의 영양보충에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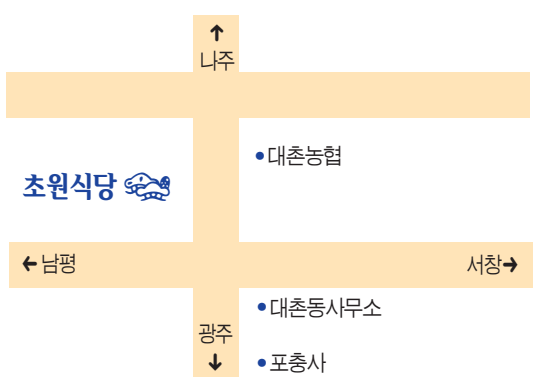
좋은 쌀로 갖 지은 밥도 찰지고, 정갈한 밑반찬도 추천할 만하다. 밥을 먹은 뒤 도심 속 농촌인 지식동 일대의 자연을 만끽 할 수 있는 것은 덤이다.

우렁이탕은 2인분 이상만 판매하며, 1인당 7000원. 오리탕 3만원. 문의 062-374-4509.

○영광기자 kroh@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찾아가는 길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75명에 장학금 5000만원 지급한 효사랑 장학재단

장애우 등 불우 학생들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과 효사랑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설립된 광주 남구 효사랑 장학재단(이사장 조기찬)이 제4회 효사랑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했다.

효사랑 장학재단은 지난달 25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제4회 효사랑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75명의 학생들에게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75명의 효사랑 장학생들은 고등학교 50명과 대학생 25명이며, 고등학교생들은 50만원씩, 대학생들은 각각 100만원씩을 받았다.

장학재단은 이번 장학생 선발을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광주 시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장학생 추천을 받아 1·2·3차의 심사를 거쳐 75명의 학생들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뽑힌 장학생중에는 시각장애 1급이라는 신체적인 핸디캡에도 굴하지 않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학생이 있다. 세광학교 남미에 학생이 그 주인공이다.

또한 어릴적 부모님과 헤어져 아동 시설인 신애원에서 생활하면서도 개근상, 봉사상, 석차 1등을 놓치지 않



효사랑 장학재단은 지난달 25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제4회 효사랑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광주시 남구청 제공)

는 광주공업고 김현준 학생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교내외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학생들이 선발됐다.

재단 관계자는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 어려움 여건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학생들이 많다"며 "이러한 학생들이 더욱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

사람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11월에 설립된 효사랑 장학재단은 2009년 2월 제2회 장학생 선발을 통해 114명의 학생에게 6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지난 9월에도 제3회 장학생 선발을 통해 64명에게 4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김기환·광주시 남구 봉사동

인생열쇠

☎ 062-383-8982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도 원하는 바를 성취 못하시고 알 수 없는 장애가 생기는 분

소원성취의

갑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점술원, 역술원 아님, 상담료 없음)

부담없이 차한 잔 하시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 가세요

대인동상실부동산

☎ (FAX)223-1772 ☎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재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십시오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은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들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을 다하겠습니다.

아담공인중개사

010-3616-8698 062-233-2222

●태양광부지 구함●

식당. 전원주택.

•광산구 신암동 호반대영 3,458㎡ 3.3㎡당 100만원.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용. 조망양호

전원주택. 종교시설용도

•광산구 신암동 보현영원 앞 9,722㎡ 3.3㎡당 60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농장. 주말주택.

•나주 세지면 송제리 7,385㎡ 3.3㎡당 48,000원. 보전관리지역.

•나주 왕곡면 소재지 부근 7,410㎡ 3.3㎡당 35,000원. 계획관리지역.

•나주 봉황면 각동리14,093㎡ 3.3㎡당 48,000원. 계획,생산지역.

•영암 군서 양정리 19,098㎡ 3.3㎡당 35,000원. 생산관리지역.

•영암 덕진 영보리 14,414㎡ 3.3㎡당 35,000원. 생산관리지역.

식당. 사옥.

•서구 마곡동 서남대병원 앞 대지 1,337㎡. 연면적(2층)400.2㎡. 매대가 11억.

•서구 농성동 구 한전앞 대지 719.7㎡. 연면적(3층) 328.9㎡. 매대가 11억.

생산녹지

•서구 마곡동 광송간 도로변(군사보호지역)5,243㎡. 2차선 도로 진입가능. 매대가 3.3㎡당 116만원.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강영희 ☎ 0621364-8700 H.P.010-4608-3700

Table with multiple columns listing real estate listings, including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information.

•위치:법원 입찰장 전너편 •권리분석-현장답사-입찰대행-낙찰(진금부족시 최저금액 대출일선)-명도(이사)